메트로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Sports p/20

'오승환 2년 95억 한신행'

국정원 '트위터' 모두 위법소지

NEWS p/02

대형 유통3사 '갑의 횡포' 철퇴

NEWS p/03

고 녀석 잘빠졌네

p/07

메트로신문의 **광고효과**를 알고 싶으신가요?

글로벌기업들을 광고주로 유치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메트로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27개국 220여개 도시에서 배포되는 메트로신문은 국내외 모든 뉴스를 체계적으로 글로벌 통신사인 metro world news wire를 통해 전세계 표준화된 방식으로 [illegible] 있습니다. 메트로는 주로 [illegible] 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대학캠퍼스, 아파트, 빌딩 등에서 [illegible] 또는 [illegible]을 통해 독자의 손에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세계최대 다국적 무료 종합 일간지로 기네스협회에서 공식인증한 신문입니다(2006년 11월 현재)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제[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동부·LIG "우리도 두산처럼!"

위기 때마다 주력사업 매각 M&A로 재기 벤치마킹
하이텍-손보 등 팔아 자금마련…시장 일단 긍정신호

日 해저 화산 폭발로 생긴 200m 길이 섬 21일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니시노지마 남남동쪽 약 500m 지점의 태평양의 해저 화산 폭발로 생겨난 새로운 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직경 200m로 축구장 4개 정도 크기인 이 섬은 20일 오후 4시 20분께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발견됐다. 일본에서 해저 분화로 새로운 섬이 생긴 것은 87년 만이다. /AP 연합뉴스

최근 동부그룹과 LIG그룹이 재무 리스크 불식을 위해 주력 사업 매각에 나서자, 새삼 두산그룹의 성공 신화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은 국내 대기업 중 주력 사업 매각을 통한 인수 합병(M&A)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와 LIG도 두산의 뒤를 이어 재기에 성공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두산, M&A 성공 신화 이뤄

두산그룹의 모태는 주류회사인 동양맥주(현 OB맥주)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1998년 동양맥주를 벨기에 인터브루에 넘기고, 서울 을지로 사옥도 팔았다. 또 3M·코닥 네슬레 지분을 과감히 매각하는 한편, 주력기업이던 음료 사업도 코카콜라에 양도됐다.

이런 구조조정을 거쳐 마련된 자금을 바탕으로 2001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합기계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중공업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산은 2010년 인수한 미국 장비업체 밥캣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지분(20.54%)을 7800억원에 매각했다.

두산은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있었던 테크팩(매각대금 4000억원)과 주류부문 매각(5027억원)에 이어 3개 계열사와 KAI 지분을 정리해 1조7000억여 원 규모의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주력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라며 "최근에도 다양한 방식의 매각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핵심 사업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경기 회복기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여력을 조기에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 동부·LIG, 두산 성공 사례 따르나

최근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와 LIG도 위기 상황의 탈출구로 주력 사업 매각에 나섰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재무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등을 매각해 3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김 회장은 자신이 꿈꿔왔던 '반도체 성공 신화'를 모두 접은 것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자산 18조원 규모의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의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키로 했다. 구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LIG손보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다.

◆ 주력 사업 매각에 시장도 긍정적

동부와 LIG의 이런 움직임에 업계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동부는 주력 사업 매각 결정 다음날 동부하이텍(14.91%), 동부제철(15%), 동부CNI(14.93%), 동부건설(14.89%)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동부증권(6.82%), 동부화재(1.41%) 등 금융주도 상승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통 큰 결정으로 인해 동부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를 맞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IG의 경우에도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 지분 전량 매각으로 그간 LIG손보의 주가를 짓누르던 우려 요인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까지 넘겨 기업어음(CP) 피해자 배상 자금 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짓눌렸던 주가가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하균기자 lees1@metroseoul.co.kr

서울시, 4단계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내달 시행

서울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4단계 '동파예보제'를 실시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동파예보제'는 동파 발생 위험도를 '예방-주의-경계-특별경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예방'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5도보다 높아 동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때 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밀폐해 찬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주의' 단계는 영하 5도~7도 사이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돼 동파가 발생하는 단계다. '경계' 단계는 영하 7도~10도 사이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동파 발생 위험수준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 조치를 하더라도 욕조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흐를 정도로 틀어놓아야 한다. '특별경계' 단계는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동파 다량발생 수준으로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온조치를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 놓아야 한다.

한편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과 소형 상가 등 동파에 취약한 7만8000세대의 계량기를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기본 100만원짜리 '등골브레이커'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올겨울 노페(노스페이스)를 밀어내고 '캐몽'이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다.

캐몽은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르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패딩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다. 가격이 100만원대부터 시작해 200만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있지만 그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이미 강남지역 캐나다 구스와 몽클레르 매장의 주요 제품은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프리미엄 패딩 열풍에 아파트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캐나다 구스 800세를 20~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병행수입을 통해 가격을 95만~98만원까지 낮췄지만 첫날 대부분의 물량이 팔리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지만 완판에 가까운 판매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싼 패딩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점이다. '강남 패딩'이라 불리는 캐몽을 입지 않고선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세도 못 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앞서 부모들의 등골 휘게 할 정도로 비싼 가격의 노페가 유행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고가의 패딩은 결국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올겨울 노페보다 비싼 캐몽의 등장은 또 한 번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 뒤쳐지길 바라는 부모야 없겠지만 유행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무분별한 요구에 응해줘서는 안 된다. 과연 교복 위에 100만원짜리 패딩이 어울리는지,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21만건 모두 위법소지

검찰 "국정원 직원들, 트위터글 2만6550건 '봇' 프로그램 이용해 유포"

지난해 대선과 총선 기간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용으로 올린 트위터 글 약 121만 건이 새롭게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 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 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 건,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원래 글 2만6550건은 선거 관련 1만3292건, 정치 관련 1만3258건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 건이 모두 위반이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동으로 수십 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 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689건 가운데 2만7000여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나 조력자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증 문제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 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청와대 행정관 골프접대·상품권 받아 경질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고 경질된 일이 발생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던 A 행정관은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 결과,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한달 여전 자신의 원래 소속 부처로 되돌아갔다.

내부 감찰 결과 A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한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선준기자

불 뿜는 K-9자주포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앞둔 21일 육군 2군단 예하 포병대대 K-9자주포가 화력도발 대비 훈련 및 대 침투종합훈련의 일환으로 가상의 적을 향해 화염을 내뿜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보다 활성화"

현오석, 우선순위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 걱정보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4·1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한 투기 재연 우려 질의에 "만약 그런 투기가 발생하면 잠재를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상황이 침체가 지속되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주택과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투기 걱정보다는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우나 다른 나라 예도 그렇고 오히려 공급이 줄고 경쟁성 문제가 생겨 결국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이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제순기자 [illegible]

자선냄비 가동준비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가는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21일 서울 충정로 구세군빌딩에서 모금활동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전투기 F-35A 수의계약 결론 낼듯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사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군 당국은 21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22일 열고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전투기 소요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차기전투기 후보기종 중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을 부여한 소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더불어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북한 영공에 몰래 침투해 '킬 체인'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F-X 사업비' 8조3000억원으로는 애초 계획의 절반인 30~40대가량 구매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장력도 기체 내 탑재 미사일 4기, 외부 장착 11기로 타 기종에 비해 떨어진다. /김민준기자

롯데호텔부산 "전기 절약해요"
롯데호텔부산은 지난 20일 오전 김서현 총지배인 및 임직원들과 함께 호텔 및 백화점 인구에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동해남부선 효율적 활용 부산시-철도공단 협약식

부산시는 22일 오후 5시30분 부산시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해남부선 철도자산 효율적인 활용·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우동~동부산관광단지 9.8km)와 고가하부 철도 부지(부전역~수동역 11.2km)를 활용해 자전거 길, 산책로, 전망대, 녹지로 조성 등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돌아온 영도대교 "하루 우회를"

27일 복원 개통 행사때 차량 전면통제 …부산대교·남항대교 이용해야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의 애환이 깃든 추억의 영도다리가 복원된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개통식과 함께 도개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일 낮 12시부터 12시15분까지 15분간 한 차례 상판을 들어 올린다

시는 이번에 진행되는 도개 행사에 대비해 사장 수변 및 영도대교 교통 통제, 안전·단속요원 배치 및 대중교통 우회 운행, 주차장 확보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개통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도대교가 전면 통제된다

이날 통제로 인해 구 시청교차로 중앙동에서 영도대교 방향 좌회전 차선은 임시 폐지된다. 차량들은 인근 부산대교나 남항대교로 우회 운행해야 한다. 영도에서 나가는 차량들도 부산대교나 남항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이날 통제 시간 동안 영도대교를 통과하는 17개 버스 노선(시내 16, 마을 1)이 부산대교를 통과하는 임시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47년 만에 "으랏차차~" 부산의 명물 '영도다리'가 47년 만에 복원돼 27일 오후 2시 중구 남포동 차량지 부근에서 개통식을 갖고 첫 도개 행사를 연다 /뉴시스

또한 개통식 이후 매일 교량 도개 운용에 따른 차량 통제 시간(낮 12시~12시15분)을 대비해 17개 노선버스 중 3개 노선(8, 85, 508)은 부산대교로 우회 운행(오전 11시~오후 1시)한다. 나머지 14개 노선은 배치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차량 혼잡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특히 차량 통제 시간대에는 노선버스가 부산대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일반차량의 남항대교 이용을 권장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평상시에도 교통 통제 및 관리요원들이 구 시청 앞 및 대교교차로에 배치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들을 적극 통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7년 만에 복원된 추억의 영도다리 개통식이 타악 퍼포먼스 공연과 영도다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등의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며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에어부산 타고 매일 홍콩으로!

다음달 23일부터 증편 운항

에어부산이 연말 시즌을 맞아 다음달 23일부터 부산~홍콩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다. 부산~마카오 노선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편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페리를 이용하면 1시간 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도시다. 이에 에어부산은 홍콩과 마카오를 동시에 찾고 싶은 고객들에게 최적의 스케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증편 운항을 결정했다

에어부산은 이번 증편을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에서 특가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산~마카오 노선을 이용 3인 이상 발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폴라로이드 카메라 및 화장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또 부산~홍콩 노선의 경우 홍콩 여행의 다양한 노하우 공유 이벤트를 통해 호텔숙박권 및 관광지 입장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장하균기자

"낙동강 서식 민물고기 중금속 식품기준 적합"

낙동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낙동강에 서식하는 잉어, 붕어, 숭어, 동자개, 메기, 웅어, 가물치, 참게 등 민물고기 10종을 수거해 중금속 오염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강 자연산 민물고기 내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됐다

연구소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내수면 어획 수산물에 대해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부산지역의 내수면 수산물은 연간 600~700t가량 어획되고 있으며 대부분 인근 식당이나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부산아쿠아리움의 '무서운 새 식구' 악어거북 부산아쿠아리움은 21일부터 물 속의 무법자라 불리는 악어거북 가족 수조를 새롭게 선보여 관람객들이 이들의 야생성을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입을 크게 벌려 혀의 루어로 먹이를 유인하는 악어거북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부산시티투어 민간노선 만든다

탑승객 급증에 버스 태부족…내년 일부 코스 개방

부산시는 시티투어버스 탑승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티투어 명품화를 위해 민간 시티투어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티투어 탑승객은 올해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11월 1일 기준 20만 명, 전년 대비 26%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총 11대의 버스(2층 6대, 1층 5대)로 운영 중인 현행 부산시티투어는 해운대·태종대 순환노선에 8대, 야경 관광 등 테마 노선에 3대가 투입되고 있다

주력 노선인 순환노선에는 주말과 공휴일, 여름철 성수기 탑승 희망객이 2200~2500명에 달하지만 하루 평균 수용 가능 인원은 1200~13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층 버스 8대(오픈탑 2분의 1 이상) 정도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부산역 출발 해운대·태종대 방면 자유 승하차식 순환노선을 2개 코스(해운대 방면, 태종대 방면)로 나누고 이 중 태종대 방면 코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해운대 방면은 부산관광공사가 8대로 계속 운영하고 태종대 방면은 민간 시티투어 8대가 투입돼 부산역~남포동~송도~남항대교~태종대~북항대교를 거쳐 오륙도~용호유람선터미널~경성대~부산역을 20분 간격으로 순환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민간 시티투어 사업자 모집 공모를 하고 사업설명회, 제안 설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진숙 해수부 장관 취임 후 첫 해양수산원 방문 지난 20일 윤진숙(왼쪽 둘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찾아 현안 사항을 보고받은 뒤 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를 조종하고 있다

경남정보대 '38.5대1'

수시2차 7079명 몰려 경쟁률 사상 최고··'맞춤 취업교육기관' 인식

올해 부산권 4년제 대학들의 수시2차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경남정보대학교의 수시2차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 큰 대비를 이뤘다.

경남정보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4학년도 수시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184명 모집에 7079명이 지원해 평균 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과별로는 유아교육과가 2명 모집에 295명이 지원해 14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자정보계열 134.5대 1, 간호학과(4년제) 113.0대 1, 인테리어디자인과 77.0대 1, 미용계열 71.3대 1 등의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이 대학이 수시모집 전형을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의 지원자 수와 경쟁률은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 대학이 기록한 지원자 수는 전문대학은 물론 지난 15일 마감한 4년제 대학 수시2차 모집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동명대(12.9대 1)를 월등히 뛰어넘는 숫자다.

대학 측은 인문계고교 학생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24.4%(96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수시1차와 마찬가지로 인문계고교 학생의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태정 입시관리처장은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고 고졸 취업자 수가 늘면서 전문대 응시자도 감소 추세"라며 "이번 수시2차 지원자 수 증가는 응시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취업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변화가 커진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학기술대가 지난 20일 2014학년도 수시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정원 내 전형 228명(총 모집 정원의 10%) 모집에 3046명이 지원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7대 1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올해 부산과기대의 간호과 등 보건복지계열의 강세는 여전했다. 특히 간호과 전문계특별전형에서 1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50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사회복지계열 인문계특별전형도 4명 모집에 124명이 지원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트리도 눈사람도 크리스털이네" 21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층 스와로브스키 매장을 찾은 여성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털로 만든 트리, 눈사람 투플트, 별 모양 등의 장식품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LX대한지적공사 부울본부 올해 사업 점검 회의 LX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본부(본부장 홍용철)는 지난 20일 오후 본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등 태스크포스(TF)팀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국토부 재조사추진단 및 부산시청 사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정하균기자 가나

버려진 예술품으로 이웃 도와요

달마도 대가 법용스님 내달 기증전시회 열어

무보시 달마도의 대가로 알려진 부산 사리암 법용 스님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려고 전시회를 연다. 법용 스님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서면 영광도서 4층 영광갤러리에서 '예술품 기증 전시회'를 연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시민들이 이사하면서 방치했거나 버린 서예·동양화·도예 작품들. 법용 스님은 사비를 들여 표구와 액자 작업으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훌륭한 작품들로 재탄생시켰다.

버려진 예술 작품을 재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다. 법용 스님도 자신이 직접 그린 달마도 1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로 마련된 수익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인다.

특히 지장재일(매달 음력 18일)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리암에서 하는 무료급식에 오는 어려운 이웃 300~400명에게 밥반찬을 단 방석 전달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2년제 대학에 진학한 한 여학생에게도 수익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시회 관련 문의는 부산 사리암 (051-201-2255). /연합뉴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부산불교방송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이 시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성철 스님의 게송(偈頌)을 비롯한 현대 고승들의 게송을 고은 시인이 직접 시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참석자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강연은 불자와 시민들은 물론 문학도들에게도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51)797-5140

market index <21일>

- 코스피 1993.78 (-23.46)
- 코스닥 501.05 (-3.41)
- 금리 2.88 (+0.02)
- 환율 1071.50 (+4.00)

뉴스 & 뉴스

증권사 직원 영업수익 급감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들은 올해 3월 종료된 2012 사업연도에 총 9조8000억원의 순영업수익을 냈으며 직원 1명당 벌어들인 순영업수익은 2억309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12.1%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삼성·한화·SK·KTB 등 국내 증권사들이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김현정기자

체크카드 사용액 역대 최고

● 지난달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신용카드 비중은 사상 최저로 밀어졌다. 21일 여신금융협회가 분석한 지난 10월 카드 승인 실적에 따르면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8조3900억원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에서 18.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16.4%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37조2500억원으로 81.3% 비중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작대	김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050-2100
독자센터	02)721-9897

성장률 '헛다리 전망' 속아봐?

연말마다 주요연구소 내놓는 수치 실제와 괴리…"내년 3%대 후반" 기대

"내년도 3% 후반대 경제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연말을 앞두고 주요 경제연구소 등이 내놓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보다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는 무려 1%포인트를 넘나드는 '엉터리' 전망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 당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8%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 3.4%와는 0.6%포인트나 차이 난다. 한국은행(3.2%), 현대경제연구원(3.1%), KDI(3.0%)도 예측이 어긋난 것은 마찬가지다.

이같이 부실한 전망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KDI는 3.8%, 한국금융연구원은 3.9%로 각각 예상했다.

하지만 2012년 경제성장률은 겨우 2.4%에 불과했다. 많게는 1.5%포인트나 차이가 난 셈이다.

더 나아가 2009년의 경우 정부는 4%의 경제성장률을 점쳤지만 실제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예측치와 실제 수치 간 괴리가 무려 3.7%포인트에 달한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전망치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망이라는 것은 과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글로벌 이슈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완벽한 전망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경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며 "되도록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5위를 자랑하는 경제 규모를 지녔기 때문에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해도 일자리가 10만 개나 줄어들고 2조원가량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다. 엉터리 성장률 전망이 큰 경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KDI는 올해 2.9%에 그쳤던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3.6%까지 높아지는 덕분에 한국 경제도 내년에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3.8%, LG경제연구원은 3.6%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경제연구소들이 이번 전망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엄마도 일하고 싶다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3 워킹맘 엑스포에서 행사장을 찾은 한 여성이 아이를 업고 유모차를 끌고 부스를 둘러다니며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여성 일자리 정책 및 새로운 일자리·창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됐고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도로명 주소 변경 뒷짐 진 금융사들

내년부터 기존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고객과 거래하는 금융권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면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화재나 범죄 같은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수백만 명의 고객과 거래하는 금융권은 적극적인 홍보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지기자

정부-제조사-이통사 꼬리문 '단통법 싸움'

'네탓 공방'에 국회 계류 법안 통과 못할까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제조사에서 제조사와 이통사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과 20일 잇따라 제조사에 '단통법'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펼쳐 시장을 혼란시키지 말라고 경고에 나선 가운데 제조사 측은 "휴대전화 보조금 주범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보조금 원인을 자꾸 단말기 장려금이나 출고가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사실 단말기 출고가는 2세대(2G) 피처폰 출시 때와 비교해도 10%가량 상승에 불과하다"며 "이통사 간 경쟁으로 문제되는 과다 보조금을 해결해야 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통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통사 간 경쟁으로 인한 보조금 문제도 있지만 제조사 측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장려금도 존재하고, 출고가 역시 부풀려진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말한다.

특히 22일 출시되는 구글 '넥서스5'의 출고가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넥서스5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전자 G2와 비슷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는 지난 1월 출시된 삼성전자 피처폰 와이즈2 2G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국내 제조사 단말기의 출고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9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프리미엄폰 위주로 형성된 시장은 소수의 제조사 독점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로 형성돼 있다"면서 "단통법을 통해 판매장려금의 투명화를 이뤄낸다면 적정 단말기 가격이 책정되고 시장 경쟁으로 출고가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네 탓 공방' 속에 갈등만 지속되며 단통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역시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대졸 신입사원 90% 수습기간 중도 퇴사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은 수습 기간에 회사를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147곳과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습 사원 100명 가운데 10.3명꼴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비자발적 퇴사율은 3.2%로 대기업 3.2%와 중소기업 3.1% 사이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중소기업이 16.2%로 대기업 8.2%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시기는 '현업 배치 이전'이 43.2%로 가장 많았고 '현업 배치 이후 본격적인 능력 발휘 구간'이 37.0%로 뒤를 이었다. 비자발적 퇴사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조직 적응-융화력 부족'(37.5%)을, 중소기업은 '근무 태도 불량'(37.7%)을 1순위로 거론해 기업 규모에 따른 신입사원 기대 역량에 차이가 드러났다.

한편 신입사원 교육 기간은 대기업 23.1개월, 중소기업 13.9개월로 대기업이 10개월가량 더 길었다.

/채윤희기자 unique@

삼성전자 31분기 연속 평판 TV시장 1위 기록

삼성전자가 31분기 연속 전 세계 평판TV 시장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8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3분기 평판TV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5.5%로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LG전자 14.7%, 3위는 소니 7.5%였다. 이어 TCL 5.7%, 스카이워스 5.6%다.

삼성전자는 특히 전분기 대비 2위 업체와 격차를 11%가량 벌렸고, 매출 점유율로는 2, 3, 4위 업체의 점유율 합과 맞먹는 수준이다.

평판TV 이외에 3분기 LCD, LED, PDP, 3D 등 모든 부문에서 24.1%, 24.3%, 47.5%, 28.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TV 시장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김재군기자 kjg11@

부릉~ 미래에서 달려온 차들 'LA 오토쇼' 달구는 중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LA 오토쇼'에서 출품된 자동차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①메르세데스 벤츠의 'SLS AMG GT 파이널 에디션', ②포르쉐의 '918 스파이더'는 미래에서 달려 온 듯 SF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다. 내년 초 미국에 시판되는 ③현대자동차의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와 ④기아차의 신모델 'K900'도 이번 오토쇼에 출품됐다.

/AP·로이터 연합뉴스

시청한 채널 수집? LG스마트TV 논란

LG전자 스마트 TV가 소비자들이 시청한 채널과 미디어 파일 제목 등 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서 IT컨설턴트로 일하는 제이슨 헌틀리의 주장을 인용, LG 스마트 TV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을 작동시켜도 시청 정보가 LG전자의 서버로 전송된다고 주장했다.

헌틀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LG 스마트 TV의 '시청 정보 수집' 설정이 자동으로 켜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껐지만 시청 채널 정보가 계속해서 LG전자 서버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TV에 연결한 외장하드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의 이름도 LG전자 서버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보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헌틀리가) 시청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TV 약관에 동의한 상태로 '시청 정보 수집 설정'은 해당 정보가 전송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닌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체 조사 중이며 고객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영기자

'신의 알바' 관공서 아르바이트 쏟아진다

'신의 알바'라 불리는 관공서 알바가 모집을 시작했다.

21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4~11일 550명의 알바생을 선발한다.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대학생은 각 실국본부 또는 사업소에서 자료 관리, 민원 및 행사 안내 등의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 군포시도 '눈(얼음)썰매장 장비 관리 및 안전관리요원 보조'를 맡을 알바생 25명을 다음달 6일까지 선발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역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직장체험 연수생 20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안양시는 내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업무보조를 담당할 대학생 80명을 모집 중이다. 역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휴학생은 제외된다.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노는 벽’ 다 없애고 ‘알파룸’ 추가

아파트 평면에 혁신 바람… 공간용도 입주민 맘대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 '내실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신평면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특히 유망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번 연말에는 지금까지의 혁신 설계를 총망라한 평면이 대거 선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에 입주민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한 선택형 설계를 도입했다. 전용면적 112㎡ 이상으로 '라이프스타일룸'을 적용, 안방 워크인(walk in) 드레스룸의 레이아웃을 ▲드레스룸형 ▲서재형 ▲리저빙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진화를 한 부분은 붙박이장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방과 거실 구석구석에 수납 공간을 배치해

롯데건설이 부산에 분양하는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 견본주택에 마련된, 라이프스타일룸을 선택 공간형 '서재룸' 내부 이미지.

'노는 벽'을 없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이 같은 설계 트렌드에서 다시 한 발 전진했다. 이번 아파트에 수납장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붙박이장을 선보였다. 현대건설 역시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에 가족 구성원을 고려한 3가지 맞춤형 평면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방, 거실, 주방 등의 각 공간마다 기능이 따로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평면도 유행이다. 예컨대 주방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꾸며놓는 식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3-3생활권에 지어지는 'M1블록 중흥S-클래스 리버뷰'는 전용면적 98㎡와 109㎡에 본연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알파룸을 제공한다. 또 'M3블록 모아미래도 리버시티'는 주방에 팬트리 맘스데스크 등과 함께 다양한 수납장을 갖추고 자녀 방에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와이드클로젯, 멀티데스크 등 붙박이장을 박하게 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간 설계의 발전은 주거 만족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가구 구입 비용도 절감돼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양한 설계 특화의 비교와 함께 비용 추가 여부도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선화기자 psa082@metroseoul.co.kr

굴곡있는 책도 평면스캔 '척척'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3 기록정보관리산업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굴곡이 없는 책을 놔두는 것만으로 평면 스캔이 가능한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6, 가격 오를 전망

내년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애플의 아이폰6가 기존 제품에 비해 화면이 커지는 대신 가격이 비싸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투자기업 서스퀘해나의 분석가 크리스 카소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보기술(IT) 전문 지면 지 올싱스디를 통해 20일(현지시간) 이같이 전망했다.

아이폰6가 더 빠른 칩과 더 단단한 사파이어 유리, 더 큰 화면을 장착할 것이며 가격은 50~100달러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최신 아이폰의 판매 가격을 전작과 같게 유지해왔던 애플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국명기자 kmj@...

뉴스 & 뉴스

국내 디지털마케팅 미흡

우리나라의 디지털 마케팅 수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5년가량 뒤처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하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어도비는 최고마케팅(CMO) 위원회와 공동 실시한 '2013 아태지역 디지털 마케팅 성과 측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마케팅 담당자 81%는 디지털 마케팅이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과 9%만 고객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리즈 밀러 CMO위원회 부사장은 "미국과 유럽은 이미 고객과 소통하는 '참여' 방식으로 디지털 마케팅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력과 경험도 미국·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네이버 '車공학백과' 추가

네이버가 21일 지식백과에 '자동차공학백과'를 추가했다.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는 '자동차공학백과'는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히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웹 검색만으로 4행정 디젤기관의 기본 구조나 ABS 시스템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초보 운전자를 위한 주차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판타스틱 자동차' 백과나 자동차 관련 용어를 간략하게 풀어쓴 '자동차 용어 사전' 등을 제공해온 바 있다. /박상훈기자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Путина стали аном галереи

metro Mexico

El GPS, la puerta a tu próximo date o ligue

GPS 이용 '애인찾기 앱' 인기

멕시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인 찾기' 앱이 인기다. 특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추적시스템(GPS)가 스마트 폰 확장이 가 됐다.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측정, 이용자들에게 실제 만나이 가능할지 오른다는 즐거운 실험을 갖게 단점없기 때문이다. 사는 곳이 가까우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번조(Ponu)가 대표적이다.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속삭임을 우기로 내세우는 앱도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metro France

Des WC publics très occupés

파리 공중화장실 이용률 높아

프랑스 파리의 공중화장실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의 거리 곳곳엔 400여 개의 자동화장실이 있다. 11월 파리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파리 공중화장실은 루브르박물관이나 에펠탑의 화장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펠탑과 루브르박물관 화장실 이용객은 각각 연평균 70만 명, 100만 명에 달한다. 반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매년 1310만 명이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metro HongKong

카드 15만원 연체 6년동안 잊었더니 20배 청구 날벼락

중국에서 6년 전 내지 않은 신용카드 체납액이 20배나 뛰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전모(28)씨는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지만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야 했다. 그에게 아직 상환하지 않은 1만9000위안(약 330만원)의 신용카드 연체금이 있어 신용불량 등급이었던 것.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는 이전에 미지불한 신용카드 대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18일 오후 은행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무려 3m 길이의 계좌명세서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가 6년 전에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 900여 위안(약 15만원)이 약 20배인 1만9000위안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전씨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체납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연체이자는 복리로 계산됐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전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신용카드 체납액에 연체이자를 물려 복리로 계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납액 총액은 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 측이 왜 이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은행이 체납액을 수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체납액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 이외에는 수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카드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며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비매품 '귀요미 푸틴' 인형

털모자 쓴 채 스키 타고 양동이 들고 낚시하는 모습… 러 갤러리에 전시돼 10년째 최고 인기

"인형은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니다"를 외치며 성인을 위한 인형을 제작하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바바라 스크린키니 갤러리. 최근 갤러리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인형의 10년 역사를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공예 인형을 제작, 전시하는 바바라 스크린키니는 러시아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이곳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깜찍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인형이 갤러리의 마스코트이기 때문이다.

갤러리 관계자는 "2003년에 많은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을 확신했다. 이때 푸틴 대통령을 닮은 인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풍성한 털 모자에 목도리를 매고 스키를 타는 겨울철 푸틴, 양동이를 들고 낚시하러 가는 여름철 푸틴 등 사계절의 특징을 잘 살린 '사계절 푸틴'을 만들게 됐고, 푸틴 인형은 곧 우리 갤러리의 마스코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문객들은 달리 설명이나 문구가 없는데도 곧바로 사계절 인형을 가리키며 푸틴이 아니냐고 묻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선물하거나 기념할 용도로 푸틴 인형을 사고 싶다고 말하지만 절대 팔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크린키니 갤러리에는 나무에서 헝겊,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300여 개의 인형이 전시돼 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정기적으로 전시되고, 이색 테마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도 열려 갤러리는 페테르부르크 시민은 물론 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고 있다.

갤러리 측은 "현재 여러 작가들과 함께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가수 알라 푸가체바 등 러시아의 유명 인사들을 모티브로 한 인형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는 페테르부르크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명사들의 개성을 잘 표현한 이색 인형들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인형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레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PM 4시20분 퇴근종 치는 CEO

시크릿 노트

한국애브비 '패밀리데이'

"땡 땡 땡"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4시20분이 되면 한국애브비에서는 색다른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유홍기 대표이사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종 쳤으니 퇴근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날은 직원들이 한 시간 반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애브비 패밀리데이'다.

하지만 종 쳤다고 즐거워하며 집에 갈 직장인이 얼마나 많겠는가. 패밀리데이를 지정하고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막상 끝나지 않은 업무나 상사의 눈치로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 유홍기 대표이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종을 치며 직원들에게 퇴근을 강요한다. 말뿐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숨은 노력인 것.

또 유홍기 대표이사는 패밀리데이 전날에는 전 직원에게 e메일로 조기 퇴근을 공지하고 당일엔 사무실 입구에 패밀리데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시한다. 게다가 전 직원에게 문자로 다시 공지해 프로그램이 전사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챙기는 센스도 돋보인다.

더욱이 한국애브비는 직원 중심, 환자 중심 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 양육, 자기 계발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변경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와 매년 직원 가족과 자녀를 초청해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을 하며 일상 속 생활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패밀리 사이언스 데이'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내 추천을 받은 직원을 연사로 초청해 자신의 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애브비 테드(AbbVie TED)'를 매월 개최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한국애브비는 최근 GWP 코리아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류머티증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 등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업계를 주도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새로운 사내 문화로 업계를 주도하는 한국애브비의 종소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황재용기자

제약 사회공헌이 '약손'

각종 질병에 특화된 회사 특성 살린 이웃 돕기 나눔활동 훈훈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늘고 있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냥 도와준다는 인식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헬스케어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기 전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마음의 아픔까지 보듬는 한국얀센

조현병과 ADHD 치료제 등 신경정신계 분야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한국얀센은 환자와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얀센 장학금'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단이 운영되며 한국얀센 임직원들도 장학생들과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올 초에 전 임직원이 모여 세 곡기 학용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학용품은 물론 간식거리와 애정을 담은 손편지도 함께 보냈으며 다음달 7일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만들 계획이다.

한국얀센은 이와 함께 지난 10월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특별 도서전을 열기도 했다.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지멘스 이동 건강검진

한국지멘스는 지난해 4월 '지멘스 이동 건강검진(Siemens Mobile Clinic)'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지멘스는 매달 한 번씩 지멘스 이동 건강검진 차량을 통해 전국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전문 의료진 및 지멘스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멘스는 아이들에게 '지멘스 이동 건강검진 교육키트'도 배포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의 당당한 발걸음을 돕는 한독

한독은 현재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한독은 매년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한다.

사실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다치기 쉽다. 특히 당뇨병의 흔한 합병증인 족부궤양이 심해지면 발을 절단할 위험까지 있어 철저한 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당뇨병 치료제를 통한 질병 치료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한 것.

더욱이 신발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나눔을 통해 매년 마련되고 있으며 신발 한 켤레에 담긴 정성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재용기자 hoyu@metroseoul.co.kr

한국얀센이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아래는 한국지멘스의 이동 건강검진 차량이 오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을 무료검진하는 모습

뉴스 & 뉴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공동 '영헬스' PR대상 최우수상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영헬스 프로그램(Young Health Program)-청소년 생명사랑 캠페인으로 한국PR대상 지역사회관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과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등 실질적인 자살 방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바이오파마 40주년 동영상 사시 제작 '눈길'

한올바이오파마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동영상으로 사시를 제작했다. 동영상은 보관하는 사사가 아닌 '많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사'를 위해 기획됐으며 김성욱 대표와 박승국 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한올의 창업부터 현재 연구 개발 현황, 사회공헌활동, 미래 비전 등을 직접 내레이션했다. 또 동영상은 신입사원 교육과 회사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일라이릴리 쥴-이대 약대 인턴십 후원 글로벌 협약

일라이릴리 아시아가 이화여대 약대와 '릴리 아시아 인턴십'에 참가할 학생 선발 및 지원을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잘트랩주 식약처, 대장암치료 승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대장암 치료제 '잘트랩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잘트랩주는 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혈관내피세포증식인자(VEGF)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암세포가 종양 내 영양 공급을 위해 신규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앞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Kappa
CREATE YOUR OWN SPORTS
HEAT-KOMBAT
200만명 돌파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20%
이벤트 기간 | 2013년 11월 15일(금) 부터
이벤트 장소 | 전국 카파 매장

“키스신 많아 악플 예약”

뮤지컬 ‘고스트’ 프레스콜… 아이비·주원 열연 예고

음악 방송 무대에서 실제 키스를 나눴던 아이비와 주원이 보다 수위 높은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뮤지컬 ‘고스트’의 여주인공 몰리 역을 맡은 아이비는 21일 신도림동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레스 리허설에서 “오늘은 끈적끈적한 부분을 못 보여줘 아쉽다. 직접 와서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이비와 주원은 15일 방송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듀엣곡을 부르다 실제 진한 키스를 나눠 화제를 모았다. ‘고스트’에는 여느 뮤지컬보다 많은 키스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비는 “예전에 한 방송에서 2PM의 닉쿤을 유혹했다가 미니홈피 테러를 당했다”며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두려움을 느낀다. 주원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샘과 몰리 5명이 모두 사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하지만 검색어 1위는 예약해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작품에서 만난 연상의 여배우들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던 주원은 “왜 이렇게 다 하는 여배우마다”라며 말끝을 흐리면서도 “아이비 누나에게는 또 반했다. 누나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그 판공 호소력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말했다.

4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주원은 “예전보다 공연이 너무 재미있어졌다. 무대 위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또 “1막의 마지막 곡이 정말 힘들다. 피를 토할 때까지 노래하다 보니 어느 순간 비명이 나오더라. 1막이 끝나고 나면 탈진할 정도”라며 열연을 예고했다.

‘고스트’는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주연한 연기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뮤지컬로 만들어진 ‘고스트’는 LED를 사용한 멀티미디어와 마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등으로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황소영기자 sun@metroseoul.co.kr

주원(위)과 아이비가 21일 열린 뮤지컬 ‘고스트’ 제작발표회에서 열연의 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베스트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펴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재즈밴드 프렐류드 연말콘서트

결성 10주년 새앨범 출시

남성 4인조 재즈 밴드 프렐류드(사진)가 결성 10주년을 맞아 새 앨범을 출시한 데 이어 연말 공연을 연다.

이들은 최근 일곱 번째 정규 앨범 ‘비욘드’를 발매했고 다음 달 7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7집 수록곡과 이들의 대표곡, 겨울 분위기에 어울리는 캐럴 등을 들려준다.

7집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듯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한 타이틀곡 ‘브리즈 온 마이 페이스’를 비롯해 ‘프렐류드 스위트’ ‘슬로 모션’ ‘인 연’ ‘교감’ ‘행복을 주는 사람’ ‘아아’ 등 10곡이 수록됐다.

미국 버클리음대에서 재즈 퍼포먼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주축이 돼 2003년 결성된 프렐류드는 지난해까지 6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매년 2회의 정기 공연을 개최해왔다. 재즈 팬들이 국내 최정상 연주자를 뽑는 투표인 ‘2013 리더스폴’에서 멤버 전원이 각각의 악기별 연주자 1위에 뽑힌 바 있다.

‘재즈는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탄탄한 연주력과 무대 매너로 재즈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2009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시아-아메리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리키 마틴 월드컵송 공모

팝스타 리키 마틴(사진)이 부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글로벌 콘테스트를 통해 공모한다.

소니뮤직은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 음악·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을 직접 작곡하는 슈퍼송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리키 마틴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내년 2월 결정되는 우승자와 함께 푸에르토리코에서 우승곡을 작업한다.

콘테스트의 진행과 스튜디오 녹음 과정은 스페셜 방송 및 뮤직비디오로 제작돼 전 세계에 공개된다.

리키 마틴은 “팬들과 함께 최종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특별한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91년 데뷔한 리키 마틴은 ‘리빈 라 비다 로카’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거둔 가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주제가도 불러 세계적인 인기를 거뒀다. /유순호기자

여심흔들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순정남 로비!

ROBBIE 오종혁

2013. 11. 26 – 2014. 2. 9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김도현 오종혁 배가성 방진의 송상은 최우리 오승준 육현욱 정순원 외

BOOK by Chad Beguelin and Tim Herlihy MUSIC by Matthew Sklar LYRICS by Chad Beguelin
BASED upon the New Line Cinema film WRITTEN by Tim Herlihy

이 좋은 결혼! 왜 도망가죠?

영화 '결혼전야'서 결혼의 여왕 도전하는 김효진

결혼 전에 겪는 심리적인 불안 현상인 '메리지 블루'를 다룬 영화 '결혼전야'(21일 개봉)에 참여한 배우 김효진(29)은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이 달라 연인끼리 할 이야기가 많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네 커플의 사랑과 갈등을 유쾌하게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 '결혼전야'에서 김효진은 12년 만에 다시 만난 태규(김강우)와 결혼을 준비하는 주연 역을 맡았다.

◆ 밝은 캐릭터, 시나리오 느낌에 끌려

김효진은 '결혼전야'에서 비뇨기과 의사 주연 역을 맡아 유쾌하고 발랄한 로맨스를 그린다. '돈의 맛', '끝과 시작'에서 어둡고 아리운 사랑에 치중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작품을 선택한 건 변신을 하고 싶어선 아니었고 시나리오의 느낌이 좋아서였어요.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었죠. 다른 커플들도 재밌게 작업해볼 수 있는 배우들로 모두 캐스팅된 상태였고요. 특히 주영의 밝은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주영의 모습과 실제 김효진과 공통점도 있었다. 주영의 과거에 집착하며 지질한 모습을 보이는 태규 앞에서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한다.

김효진은 "모든 일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성숙하게 행동하려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주영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유부녀 아니었다면 스킨쉽 날 뻔

지난해 5월 개봉한 '돈의 맛'에서 호흡을 맞춘 김강우와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캐스팅됐고 출연 결정 후 몇 주 만에 현장에 가야 해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강우 오빠와는 '돈의 맛'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죠. 특히 주영과 태규는 굉장히 다정한 커플인데 그걸 표현하는 데 오히려 좋았어요."

덕분에 김효진은 극중 태규 역의 김강우와 현실감 넘치는 커플 연기를 선보였다. 김효진은 "연기 호흡을 맞추기보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한 스킨십 장면은 강우 오빠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주 논의했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은 실제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재회한 연인과의 결혼앞둔
비뇨기과 여의사의 로맨스

김강우와 두번째 연기 호흡
'돈의 맛' 이어서 키스의 맛

내! 결혼전야? 콩닥~콩닥~

◆ 유지태와 결혼한지 3년… 여전히 신혼

2011년 유지태와 결혼한 김효진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효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김효진은 "결혼은 남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며 "현재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궁금증도 없다"고 말했다.

김효진은 결혼 후 유지태와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혼 1주년에는 미얀마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2일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미얀마 학교 건축을 위해 기부한 후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다.

"결혼 전에는 주위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봉사활동도 함께 다니고 꿈을 키워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결혼은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호기자 ysr@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 디자인/박은지

star bag

3D 단편영화 '유령' 연출

류승완 감독이 3D 단편 영화 '유령'을 연출한다.

류 감독은 한국영화아카데미의 3D 옴니버스 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유령'의 촬영을 끝내고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이다윗·박정민·손수현이 출연한 이 영화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신촌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 김태용 감독의 '피크닉', 한지승 감독의 '너를 봤어'와 묶어 내년 개봉된다.

日영화 '무화과의 숲' 주연

그룹 초신성의 리더 윤학이 내년 6월 개봉되는 일본 영화 '무화과의 숲'의 주연을 맡았다.

21일 일본 산케이스포츠에 따르면 윤학은 세계적인 지휘자의 가정폭력을 취재하는 잡지사 기자를 맡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부인과의 사랑을 연기한다. 이 영화는 나오키상을 수상한 인기 작가 고이케 마리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윤학은 처음으로 영화의 단독 주연을 맡는다.

미니앨범 '챕터2'로 컴백

아이돌 그룹 대국남아가 25일 미니앨범 '챕터 2'를 내고 컴백한다.

대국남아는 2011년 10월 싱글음반 '레이디'를 발표한 후 일본 활동에 전념해왔고 국내에서 새 앨범을 내기는 2년 만이다. 멤버들은 이날 음원 공개와 함께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당초 100명을 초대하려 했지만 예매 시작과 함께 매진돼 300명으로 늘렸다.

다음달 30~31일 콘서트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다음달 30~31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2013-2014 신혜성 콘서트 더 히어스 저니'를 개최한다.

그는 지난해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8000석을 모두 매진시키고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기까지 하는 등 티켓 파워를 자랑해왔다. 2011년부터 연말 콘서트를 열었던 그는 올해도 팬들과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연습에 한창이다.

비, 의리있는 컴백

새앨범 준비 불구 오늘 MAMA에 출연 – 각별한 CJ E&M에 대한 예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CJ와의 의리를 지켰다.

7월 전역 이후 공식 활동 재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비는 2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3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컴백 무대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4개월간 태국의 음악 페스티벌 '소니벵'과 중국 후난 TV 생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쾌이러난성' 무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2013 싱가포르 패션위크'에 참석하고 국내 팬미팅을 연 바 있지만 국내 음악 무대에 정식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가 새 앨범을 한창 준비하는 시기에 이 같은 대형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의 깜짝 출연은 오랜 기간 각별하게 유지해온 CJ E&M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는 2010년 4월 발표한 지난 앨범에 'VIP 생스 투'라는 공간을 만들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고마움을 정하며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각별히 챙겨주시는 어머니, 이모 같은 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많은 배우들과 함께 군 복무 중인 비를 면회하기도 했다.

올해 'MAMA'에는 스티비 원더, 패리스 힐튼 등 세계적인 스타들도 출연하는 만큼 이번 무대는 비에게 월드스타의 명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엠넷은 비의 새 앨범 발표에 맞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첫 방송될 이 프로그램에는 일본투어 장면, 새 앨범 준비 등 비의 근황과 복귀 과정, 스타와 인간으로서 그의 진솔한 모습 등을 담을 예정이다.

비는 내년 1월 6일 출시될 새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고 자작곡도 싣는다. 비는 앨범 준비와 함께 일본 나고야·후쿠오카·오사카·도쿄 등을 도는 일본투어를 진행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2NE1 신곡 '그리워해요' 음원 올킬

발표 동시에 9개 차트 1위 뮤비 속 씨엘 누드도 화제

3개월 만에 돌아온 걸그룹 2NE1이 음악 시장을 싹쓸이했다.

2NE1은 21일 신곡 '그리워해요'를 발표해 멜론·엠넷·벅스·올레·싸이월드·다음·네이버·지니·몽키3 등 국내 9개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7~8월 '폴링 인 러브'와 '두 유 러브 미'를 발표하며 새로운 음악 시도를 했던 이들은 신곡에서도 겨울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워해요'는 로(low) 베이스가 강한 신스 사운드와 록 발라드 피아노가 주축이 된 가운데 멤버들의 화음이 돋보이는 곡이다. 2NE1은 일렉트로닉 위주의 기존 음악 스타일과 다른 호소력 짙은 보컬을 선보이며 노래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고음 위주의 클라이맥스는 짙은 여운을 남긴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화제다. 화려한 기교 없이 차분하면서도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네 명의 멤버들은 쓸쓸함을 담은 표정 연기로 곡의 느낌을 살렸다.

특히 씨엘(사진)은 누드로 열연하며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상반된 매력을 발산했다. 그는 뿌연 수증기로 둘러싸인 욕조 안에서 타투가 새겨진 등을 보이는가 하면 전라로 웅크리고 앉아 섹시한 느낌을 표현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씨엘의 이번 누드는 섹시함보다는 여성의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슬픔이 교차돼 한 장의 예술사진 같은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2NE1은 22일 홍콩에서 열리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그리워해요'의 첫 무대를 공개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태국 등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샤이니 내달 21일 콘서트

그룹 샤이니(사진)가 연말 단독 콘서트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샤이니는 다음달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SM타운 위크 '샤이니 '더 위저드' 공연을 개최한다. SM타운 위크의 포문을 여는 샤이니는 '더 위저드'에 어울리는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한 차별화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샤이니는 이번 콘서트에서 히트곡 무대는 물론 '비지바이킹' '나이트메어' 등 한 번도 무대에서 선보이지 않은 정규 3집 수록곡도 최초로 공개한다. 멤버별 개인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M타운 위크는 다음달 21~29일 킨텍스에서 열리며 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에프엑스·엑소 등이 차례대로 출연한다.

김재중 다음달 17~18일 오사카 2만석 공연

JYJ 김재중(사진)이 일본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

지난 15~16일 요코하마에서 첫 솔로 콘서트를 개최한 그는 다음달 17~18일 오사카의 오사카성홀에서 추가 공연을 열고 2만여 팬과 만난다. 이번 투어는 김재중이 솔로로 발표한 정규 1집과 미니앨범 수록곡 등을 선보이는 자리로 라이브 밴드와 무대를 꾸민다.

지난달 발표한 정규 1집 'WWW'는 '원, 와이'는 12개국 아이튠즈와 일본 타워레코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해외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요코하마에서 개최한 콘서트에는 이틀간 6만 명이 몰려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유순호기자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K팝스타 3' 지원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톱 9 출신인 한희준(사진)이 24일 첫 방송될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에 지원했다.

제작진은 21일 "'아메리칸 아이돌'로 이름을 알렸던 한희준이 지원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해외 유명 오디션과 견주어도 'K팝스타3'의 음악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희준은 지난해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11'에 출연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톱 9에 진출했다. 또 9월 미국에서 '희준 한'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싱글 '브링 더 러브 백'을 발표해 이미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유순호기자

가희 "옷, 잠글까요 말까요" 가희가 코스모폴리탄 12월호 화보에서 재킷과 란제리를 매치한 패션으로 섹시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는 화보 인터뷰에서 "이젠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가 아닌 솔로 가수 가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유순호기자

순위	가수	곡	변동
1	miss A	Hush	▲1
2	다비치	편지	NEW
3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2
4	허각	향기만 남아	NEW
5	태양	링가링가	NEW
6	박지윤	미스터 리	▼3
7	K.will	촌스럽게 왜 이래	▼2
8	유성은	Healing	▲2
9	신승훈	Sorry	▼2
10	엠블랙	Vain	NEW

11월 3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지드래곤 / 탑 / 태양

보라 패션디자이너로 첫발

'패션왕'프로서 만든 옷 내년 서울 패션위크 출품

걸그룹 씨스타 멤버 보라(사진)가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SBS '패션왕 코리아'(이하 '패션왕') 제작진은 "보라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상을 2014 SS 서울 패션 위크 무대에서 선보이는 영예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패션왕'에 출연 중인 보라는 국내 1세대 디자이너 설윤형의 장녀이자 트렌디한 남성 의상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주영과 한 팀이 됐다. 첫 만남부터 두각을 드러낸 보라는 첫 만남부터 뛰어난 실력으로 이주영 디자이너를 사로잡았다.

보라가 디자이너로 데뷔한 '패션왕'은 24일 첫 방송된다. /정성훈기자

빅뱅, 지구 들었다 놨다!

지드래곤·탑·태양 개별활동 中·日·美 흔들고… 오늘 홍콩 MAMA 무대 다함께

그룹 빅뱅의 멤버들이 분리와 합체를 거듭하며 해외 무대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드래곤은 20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어권 최대 동영상 사이트 여우쿠의 투도우 영 초이스 뮤직 어워즈에서 가장 환영받는 한국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투도우 영 초이스 뮤직 어워즈'는 여우쿠를 운영하는 여우쿠 투도우 그룹이 올해 처음 주최한 음악 시상식으로, 지드래곤은 국내 가수로는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정규 2집 타이틀곡 '쿠데타'와 '삐딱하게'를 열창했고 수상 후 "크나큰 지원을 해주는 모든 중국 팬 여러분께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탑은 같은 날 일본의 퍼시픽 요코하마에서 영화 '동창생' 프리미엄 이벤트를 열고 일본 팬들과 만났다. 탑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한 단독 이벤트로 1만여 명의 현지 팬이 몰렸다.

탑은 '동창생'의 액션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며 촬영 뒷이야기를 전했고 팬들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를 낭독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탑은 편지를 통해 "'동창생'은 뮤지션이 아닌 배우 최승현으로 3년 만에 인사드리는 영화다. 리명훈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창생'은 남파 공작원 리명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개봉 1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 영화는 국내 개봉 전 해외 각국에 선판매됐고, 일본에는 내년 1월 25일 개봉된다.

태양은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보스365 클럽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는 현지 케이블 채널 MTV IGGY와 연합이 공동 개최하는 뮤직 익스페리먼트 2.0 행사에 초청돼 데뷔 이래 처음으로 미국 단독 공연을 한다.

올해 '뮤직 익스페리먼트'에는 호주 출신 일렉트로닉 그룹 엠파이어 오브 더 선과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 디스클로저 등이 출연했으며, 태양은 시리즈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편 빅뱅은 일본 돔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22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3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 출연해 스페셜 무대를 꾸민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SNL코리아'도 응사앓이 '해태' 손호준 콩트 출연

tvN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사진)이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

'1994'에서 순천 출신 대학생 해태 역을 맡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23일 방송될 'SNL 코리아'에서도 '1994'를 패러디한 콩트를 선보이며 또 다른 매력을 전한다. 이날 방송에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도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아기 부츠 딱딱한 건 안돼요

실제보다 10mm 큰것 선택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에 본격적인 월동 준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태어나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아기를 둔 부모에게는 더욱 분주한 시기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제는 필수품이 된 방한 부츠. 아이를 위해 어떤 걸 골라야 할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의 발은 70%가 연골로, 아직 단단하게 뼈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 바닥이 유연하고 가벼운 소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닥창이 딱딱하다면 아이의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게 돼 발 모양이 변형되기 쉬우며 무거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츠 바닥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넘어지지 않도록 마찰력을 높여주는 미끄럼 방지 디자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이의 발을 잴 때는 깨끗한 종이에 발을 놓고 발가락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뒤꿈치의 가장자리 끝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표시된 두 지점의 길이를 직선으로 잰 후 측정된 아이 발 사이즈에 10mm 정도의 여유를 더해준다.

아이의 발은 금방 자라므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의 스노 부츠를 장만하는 것도 좋다.

눈썰매장 나들이에도 따뜻하게 신을 수 있도록 생활 방수 기능과 보온성은 기본이다. 안감이 부드럽고 포근하게 발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을 택한다. /양성일기자

터프해진 아웃도어

암벽등반·종주산행 등 익스트림 종목들 각광
고어텍스 프로 제품 등 장비·의류 점차 전문화

최근 몇 년 사이 아웃도어는 레저 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에는 올레길과 둘레길을 중심으로 가벼운 산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암벽등반·볼더링·빙벽등반·트레일 러닝과 같이 보다 다양한 타입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극소수의 아웃도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익스트림 아웃도어 활동들이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문 안전장비를 갖추고 손과 발을 함께 이용하는 암벽등반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아웃도어 종목 중 하나다. 북한산·설악산·대둔산·월출산 등이 암벽등반에 적합하다.

반면에 최근에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진북 진안을 중심으로 '볼더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볼더링은 병아리 윤반의 튀어지의 큰 바위를 일컫는 볼더(boulder)를 오른다는 의미로, 일반 암벽등반과 달리 안전장비 없이 암벽화와 초크백만 갖추고 6~7m 내외의 바위를 오르는 것이다.

혈음이 단단하게 어는 겨울이 오면 빙벽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는데, 북한산과 우리나라의 5대 빙벽이 모두 있는 설악산이 유명하다.

이런 익스트림 아웃도어의 경우 일반 산행 중심의 아웃도어 활동보다 신체를 강도 높게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움직였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뉴 고어텍스 프로 제품과 같이 익스트림 아웃도어 활동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강도의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땀을 원활히 배출해준다. 고어텍스 고유 기능인 견고한 방수와 방풍 기능을 갖춘 장비가 필수적이다.

익스트림 아웃도어 활동으로 구분되는 종목 중 가장 잘 알려진 종주 산행은 산의 등줄기를 따라 긴 거리를 주파하고, 등반과 쉬어감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무쌍한 날씨와 다양한 지형을 오르내릴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춰야 한다.

고강도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땀을 원활하게 배출하고, 바위나 나뭇가지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인 뉴 고어텍스 프로 제품은 고강도의 종주 산행에도 적합한 제품이다.

반면에 산의 능선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나 산악자전거는 단시간에 강도 높게 움직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대표적인 아웃도어 활동이다. 이런 활동에는 뛰어난 방수·방풍 기능과 투습 기능을 집중적으로 높여 땀 배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체온을 조절해주는 고기능성 제품이 적합하다. /김의철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팔도 직화식 '불낙 볶음면'

● 팔도는 불 맛이 살아있는 '불낙볶음면'을 출시했다.

매콤 달콤한 낙지 베이스트에 불 맛을 제대로 살린 볶음면으로 고추와 채소를 직화식으로 볶은 뒤 면을 넣어 마치 불판에 낙지와 함께 볶은 것처럼 불 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지면은 1000원, 용기면은 1400원.

KT&G '심플' 3종 리뉴얼

● KT&G가 국내 슬림 담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심플(simple)' 3종을 리뉴얼해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심플 에이스5'는 기존 2중 튜브필터에서 3중 튜브필터로 변경해 목 넘김을 더욱 부드럽게 하면서도 고타르의 풍부한 맛을 동시에 구현했다. 가격은 종전과 같은 갑당 2500원.

예뻐지는 만큼 착해지는 화장품

크리스마스 한정판 출시
수익금 일부 빈곤층 후원

화장품 브랜드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구입할 수 있는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고 있다. 올해 한정판은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예년보다 착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니스프리의 '그린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캔들·디퓨저·립스틱·그린티 세트·크림 등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니스프리는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500원을 적립,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국내 빈곤가정 아동을 후원할 계획이다.

더페이스샵은 보습·메이크업·보디용품 등 9종으로 묶은 '홀리데이 러브 에디션'을 내놨다. 대표 제품인 '망고씨드 하트풀 버터'가 4만3000원, 'CC크림·마스카라·네일컬러 2종을 담은 페이스잇 스페셜세트'가 2만4900원이다. 제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아프리카 남수단 난민을 위해 기부한다.

소망화장품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숍 오늘(Onl)은 'Onl 크리스마스 리드 디퓨저'를 선보였다. 빨강과 초록색 패키지에 벨트리 모양 스틱으로 구성돼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향은 레드베리와 요거트베리 등 두 가지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세븐일레븐 '밥' 공급하는 롯데푸드 새 설비 도입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에 도시락·김밥·샌드위치 등 푸드 상품을 공급하는 롯데푸드가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밥맛' 향상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롯데푸드가 약 40억원을 투자해 밥 짓는 설비인 취반기를 새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취반기는 도시락 밥 생산에 국내 최초로 '압력밥솥 원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취반기는 다단식으로 한꺼번에 밥을 짓는 형태였지만 교체된 취반기는 자동으로 190개의 개별 솥에 밥을 안치고 뚜껑을 덮어 밥을 짓는다. /양성일기자

이효리의 '작은 결혼식' 후져보이던가요?

"우소긴 흔 것만 찾거나 할 것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제값이 쓰인 '답나는' 결혼식을 하자는 거죠."

수천만원에 달하는 호텔 웨딩, 명품 드레스와 메이크업, 고가의 스튜디오 촬영 … '억' 소리 나는 결혼식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고리'의 김정찬(38·사진) 대표가 '착한잔치 좋은날'을 통해 착한 결혼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착한잔치 좋은날은 '틀에 박히고 거품 낀' 결혼식 문화를 깨고 신랑신부의 개성과 가치관이 묻어나는 답나는 웨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결혼식 비용 절감과 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웨딩전문가가 상담부터 진행까지 돕고, 공공기관을 활용해 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한다. 축가나 사진 촬영은 재능기부를 통해 나눈다.

"요즘 웨딩 패키지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원치 않는 서비스도 무조건 해야 하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 잔칫날 주인공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늘어가죠."

착한잔치 좋은날에서는 꿈꾸던 결혼식이 현실이 된다. 단 한 벌뿐인 나만의 맞춤 드레스에서부터 메이크업, 촬영 콘셉트까지 오직 한 쌍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한 '맞춤 결혼식'이 진행된다. 예식 방식도 여러 가지다.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에서 신랑·신부의 추억을 나누는 사진전 등 신랑·신부가 막연하게 스케치해놓은 결혼식에 예쁜 색을 입혀준다.

"틀에 박히고 거품 낀 웨딩 그만" 네트워크 '고리' 김정찬 대표

초호화 예식장·사진촬영 등 '과시 비용' 줄이면 억소리 날 필요없어
콘서트·사진전 형식 예식에 맞춤 드레스 제공···꿈 꾸던 웨딩 가능

◆돈 없어도 착한 결혼식

"요즘 결혼식은 '돈' 없이는 꿈도 못 꿔요. 웨딩업체들이 '일생 단 한 번'이란 미명 아래 과시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탓이죠. 하지만 착한잔치 좋은날에서는 '착한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착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공식을 깨고 유통 구조를 바꿔 양과 질이 모두 '착한' 웨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실체 없는 중간 유통구조에 들어가던 돈을 정직하게 일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 가격 거품을 걷어낸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새롭게 시도한 것이 제주도 여행과 스냅 사진을 연계한 웨딩 앨범이다. 신랑·신부가 여행을 하는 동안 제주 현지에 있는 작가가 따라다니며 둘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는 방식인데 반응이 꽤 좋다. 스튜디오 촬영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 데다 품질도 뛰어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현명한 나눔이 있는 결혼식

착한잔치 좋은 날의 첫 신랑 김 대표 역시 착한 결혼식을 치렀다. 수백만원 하는 웨딩 앨범도, 떠들썩한 예물 교환도 쏙 뺐다. 다음 예식에 쫓기고 비싼 꽃으로 치장해야 하는 웨딩홀 대신 서울시청 별관 후생관 '소담'을 빌리고, 가짓수만 많은 뷔페 대신 샌드위치와 음료로 대신했다. 수십만원의 축의금을 내고 1만 먹고 가는 하객들도 결혼식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축의금은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눴다.

김 대표의 사례처럼 착한잔치 좋은날은 '현명한 나눔'이 있는 결혼식을 만들어준다. 신랑·신부가 직접 기부할 곳을 정한 후 축의금 일부를 전달하기도 하고, 식장 한쪽에 부스를 설치해 하객들이 축의금 대신 기부를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나눔의 선한 끈은 결혼 이후에도 이어진다. 착한잔치 좋은날은 예식의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 돕기와 미혼모 예식을 위해 사용 중이다.

◆이효리 같은 명사의 힘도 필요해

김 대표는 이효리의 경우가 '작은 결혼식이 후진 게 아니란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꼽았다.

"유명인이라면 특급호텔 결혼식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비교적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허례와 절차 등 겉모양새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결혼문화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고 오래갈 거예요."

김 대표는 어딜 가나 똑같은 결혼식, 얼굴이나 비추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와식 개념의 결혼식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가 원하는 스타일의 결혼식, 함께 나누는 결혼식을 당당하게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지영기자 ssw@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스파오 4주년 감사 세일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가 24일까지 브랜드 출시 4주년 기념 감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점퍼와 스웨터, 카디건, 플리스, 후드집업 등 겨울 신상품을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남녀 머플러와 장갑 등 잡화류는 1만원까지 할인한다. 스파오가 개발한 발열내의인 웜히트 제품은 40% 할인한 5900원에 균일가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 매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스파오 전 품목을 20% 할인하는 '4데이 4아워' 행사도 실시한다. /박지원기자

얼룩무늬 하나로 '패셔니스타'

패션 소품 카무플라주 열풍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인기에 패션 업계에서도 위장 무늬(카무플라주)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패션 초보자에게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이럴 땐 작은 아이템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평범한 일상 패션에 가방·신발 등 카무플라주 소품을 더하면 스타일이 살아난다.

가방은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가 된다. 인사이더원 패션 브랜드 리블랭크의 '카모플라쥬 숄더백'은 크로스백은 물론 토트백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카무플라주 원단에 재활용 가죽을 덧대 만들어 더욱 눈길을 끈다. 가방 안팎에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책, IT기기 등을 휴대하기 간편하다. 색상은 그린과 블루 두 가지다.

에스콰이아의 카무플라주 프린트 로퍼는 금장 패치와 금 장식으로 밀리터리 느낌이 물씬 풍긴다. 풋 패드를 삽입해 발이 편안한 데일리 슈즈로 안성맞춤이다.

매일 똑같은 양복을 입는 직장인들에게 유일한 멋내기 소품은 넥타이다. 더셔츠하우스의 '카무플라주 블루 넥타이'는 칙칙한 정장에 생기를 더하며 트렌디한 오피스룩을 완성해준다.

/박지원기자

왼쪽부터 리블랭크 숄더백, 에스콰이아 로퍼, 더셔츠하우스 블루 넥타이.

반짝 든 수지 국민첫사랑 수지가 명품 각선미를 드러낸 가방 화보를 공개했다. 미쓰에이 수지는 제일모직 빈폴 액세서리의 겨울 화보에서 체크 백팩을 들고 아찔한 한 쪽 허리라인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 검정 니트에 빨간색 미니 크로스백을 걸치는 등 다양한 가방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빈폴 코리아 제공

오승환 최고 몸값 받고 일본행?

"한신, 2년 9억엔 제의"…성사땐 한국선수 첫해 신기록

끝판왕 오승환(31·사진)의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입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선수로서 역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오승환을 노리는 팀이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로 좁혀진 가운데 그의 몸값이 9억 엔(약 95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포츠 전문매체인 스포니치 아넥스는 21일 "한신이 일본야구기구(NPB)를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오승환의 신분조회를 요청했음을 복수의 관계자가 인정했다"며 "나카무라 가쓰히로 단장이 한국으로 건너가 이날 안으로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삼성 라이온즈에 줄 이적료를 포함해 2년간 총액 9억 엔으로 거액의 계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억엔은 일본에 진출한 첫해 국내 선수로는 2004년 이승엽(2년 5억엔), 2009년 김태균(3년 7억 엔), 2011년 이대호(2년 7억 엔)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대우다.

KBO는 전날 NPB에서 오승환의 신분조회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분조회는 외국 구단이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지르는 사전 절차로 일본 구단에서 본격적으로 오승환 영입 작업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까지 28승13패와 277세이브,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삼성에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안기고 해외 진출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삼성 소속의 선수인 만큼 일본 구단은 신분조회를 요청한 뒤 삼성과 이적과 임대 등 방식과 지불 금액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성훈기자 ysa@metroseoul.co.kr

우루과이 막차로 월드컵 본선행 21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센테나리오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우루과이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우루과이를 끝으로 본선 진출 32개 팀이 최종 확정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최경주 월드컵 첫날 공동3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3 시즌에서 부진했던 최경주(43·SK텔레콤)가 올해가 가기 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경주는 21일 호주 빅토리아주 로열 멜버른 골프장에서 열린 월드컵골프대회 1라운드 개인전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로 2언더파 67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5언더파 66타를 친 공동 선두 토마스 비요른(덴마크)과 케빈 스트릴먼(미국)과는 1타 차이다.

월드컵골프대회는 국가대항전으로 개인전과 단체전 두 부문에서 우승을 가린다. 최경주와 함께 출전한 배상문(27·캘러웨이)은 3오버파 74타로 공동 3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단체전 순위는 합계 1언더파 141타로 공동 4위다.

/박순호기자 sol@

최경주가 21일 열린 월드컵골프 1라운드에서 어프로치 샷을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노골적 밀어주기…발롱도르는 호날두 것

FIFA, 돌연 투표기간 연장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수여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투표 기간이 전격 연장됐다.

FIFA 발롱도르는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축구선수에게 수여하는 개인상이다. 2010년 FIFA 올해의 선수상과 프랑스 일간지에서 주던 발롱도르가 합쳐진 상이다. 올해 후보에는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8·레알 마드리드), 프랑크 리베리(30·바이에른 뮌헨)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FIFA 발롱도르는 가맹국의 감독과 주장,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그런데 FIFA가 최근 발롱도르 투표 기간을 늘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투표는 원래 16일 마감됐다. 그러나 FIFA는 "다수 국가의 감독과 주장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간을 30일까지로 늘렸다. 먼저 투표를 했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이를 두고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말 실수를 만회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라터 회장은 지난달 옥스퍼드대 강의에서 메시와 호날두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메시는 부모들이 함께하고 싶을 만큼 착하다. 반면 호날두는 군사령관처럼 행동한다"고 답했다. 블라터 회장은 군인을 흉내낸 우스꽝스러운 몸 동작까지 하며 호날두를 조롱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자 블라터 회장은 공식 사과했다. 이 때문에 FIFA가 호날두에게 발롱도르를 안겨주기 위해 투표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발롱도르 수상자는 2014년 1월 14일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FIFA 본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정선용기자

브라질 못 가는 베일·즐라탄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모두 가려지면서 전 세계인의 축구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비운의 스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고 이적료(약 1477억원) 기록을 깨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가레스 베일(왼쪽 사진)은 조국 웨일스의 참담한 성적과 함께 일찍감치 본선 진출의 꿈을 접었다. 웨일스는 아스널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애런 램지까지 보유했지만 유럽예선에서 5위에 그쳤다.

이들에 앞서 세계 최고의 윙어로 꼽히는 라이언 긱스는 17년 동안 웨일스 대표로 뛰면서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스웨덴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파리 생제르맹·오른쪽)도 TV로 경기를 관람하는 신세가 됐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끝까지 분전했지만 호날두가 속한 포르투갈에 브라질 행 티켓을 내줬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 9골을 기록하고 있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르트문트)도 폴란드의 본선 진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에서 뛰고 있는 빅토르 완야마(케냐), 첼시의 주전 골키퍼 페트르 체흐(체코)도 다음 월드컵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1일

팀	1Q	2Q	3Q	4Q	합계
KCC	21	22	23	22	88
모비스	21	21	17	22	81
LG	23	14	12	14	63
삼성	24	17	18	14	73

프로배구 전적 21일

현대건설	2	3	흥국생명
한국전력	2	3	대한항공

롤드컵, 그들만의 리그? 3200만이 봤다

올해 전세계 시청자수 전년비 4배…아카데미·그래미상과 동급

프로게이머가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TV로 중계하고 이를 시청하는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이 e스포츠다.

즉 야구나 축구처럼 실제 스포츠를 경기장에 오지 않는 팬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부가서비스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됐던 e스포츠가 '모두의 리그'로 피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스포츠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벤트 수준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가 개발·배급하는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세계 대회인 LoL 시즌 3 월드 챔피언십 2013(이하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는 무려 3200만 명으로 나타났다.

TV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등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 이번 롤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전 세계 순시청자 수도 지난해 대비 4배 성장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인이 관심을 지닌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그래미 어워즈의 시청자 수와 비슷하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결승전 순간 최고 시청자 수는 850만명으로 조사됐다.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비교할 때 시청자 수에서는 여전히 열세다. 통상 월드컵 결승전 시청자 수는 4억 명으로 관측되며 올림픽은 이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 3년째를 맞은 롤드컵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1년만에 시청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서서히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골드컵만 해도 국내 대회에는 한국코카콜라가 후원사로 참여하며 코카콜라 본사도 글로벌 스폰서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미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운동선수나 예술인에게 줬던 P-1A 비자를 롤드컵에 참여하는 프로게이머에게도 발급했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프로게이머를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미국 정부가 월드컵과 같은 e스포츠가 조만간 주요 동영상 콘텐츠가 될 것임을 예상한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롤드컵 결승전 현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라이엇게임즈 제공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놀라운 수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LoL e스포츠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플레이어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상훈기자 cha@metroseoul.co.kr

한국OB축구회 기부금전달식에 참석한 이운재·허정무·조광래·김호(오른쪽부터)

넥슨, 축구 원로들 위해 1억 '슛~'

'피파온라인3' 전설 프로젝트 일환 OB축구회에 기부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 한국 축구계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OB축구회에 1억원을 기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축구선수 출신의 원로들을 돕게 됐다.

특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허정무·조광래·김호·이운재 등 국내 축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넥슨은 21일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3'의 '전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국OB축구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시작한 '피파온라인3 전설' 프로젝트는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한 역대 국가대표 가운데 20명의 선수를 게임 속 캐릭터로 재탄생시켜 이들의 활약을 재조명하고 세대 간 축구의 감동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아울러 축구계를 이끌어온 선배 축구인에 대한 존경심과 한국 축구 발전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부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넥슨 김대환 부사장을 비롯해 전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허정무·조광래·김호·황보관·이운재 등이 동참해 선배 축구인의 노고를 기렸다.

김대환 넥슨 부사장은 "하나의 게임을 넘어 축구계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한국 축구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헌신하신 원로 축구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종환 한국OB축구회 회장은 "은퇴한 선수들의 한창때 모습을 게임에서 볼 수 있어 매우 신선하다. 게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 넥슨에 감사하며 기부금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피파온라인3는 자타 공인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게임이다. 전 세계 45개 국가 대표팀과 33개 리그에 소속된 1만6600여 명에 달하는 실제 선수의 모습과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다. /차상훈기자

'리니지' 15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가 서비스 15주년 이벤트를 개최한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해 '켑티스와 아티스의 신오야!'란 주제 속 연말 이벤트 3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벤트 '15주년 케이크 대소동'은 이용자가 게임 내 '오티스의 케이크', '오티스의 선물 상자' 몬스터를 사냥할 경우 능력 향상 아이템 '오티스의 케이크 조각'과 3단 가속 아이템 '오티스의 3단 케이크', 경험치 추가 아이템 '드래곤의 토파즈'를 증정한다.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걸작의 탄생' 이벤트는 리니지 이미지를 활용해 15주년 창작물을 만들고 작품을 뽐내는 참여형 이벤트다. 엔씨소프트는 접수된 작품 중 총 9편의 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착한 남자 켑티스의 세 가지 선물' 이벤트는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며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계정을 생성한 고객들에게 15주년 기념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20일 이전에 생성된 모든 계정 이용자에게는 '캐릭터 이름변경권'과 '캐릭터 성별전환권' 중 1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 '캐릭터 전용창고 열쇠' 등 4종의 아이템으로 꾸려진 '15주년 선물상자'도 모든 유저들에게 지급한다.

엔씨소프트 글로벌라이브사업1실 이성구 실장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모바일 리워드앱 '미션피플' 기업 미션 수행하면 포인트

신개념 리워드 앱 '미션피플'이 출시됐다.

SK 계열사의 비즈니스 파트너 서비스인은 모바일 리워드 앱 '미션피플(미플)'을 21일 구글플레이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리워드 앱은 소비자가 기업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주는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 앱이다. 기존 리워드 앱이 광고 시청, 앱 다운로드 등 수동적인 미션을 요구했다면 미플은 OX퀴즈, 타이핑 미션 등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친구 초대하기, 커뮤니티 기능 등 SNS 기능도 접목시켰다. 서비스인 김봉현 대표는 "기존 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